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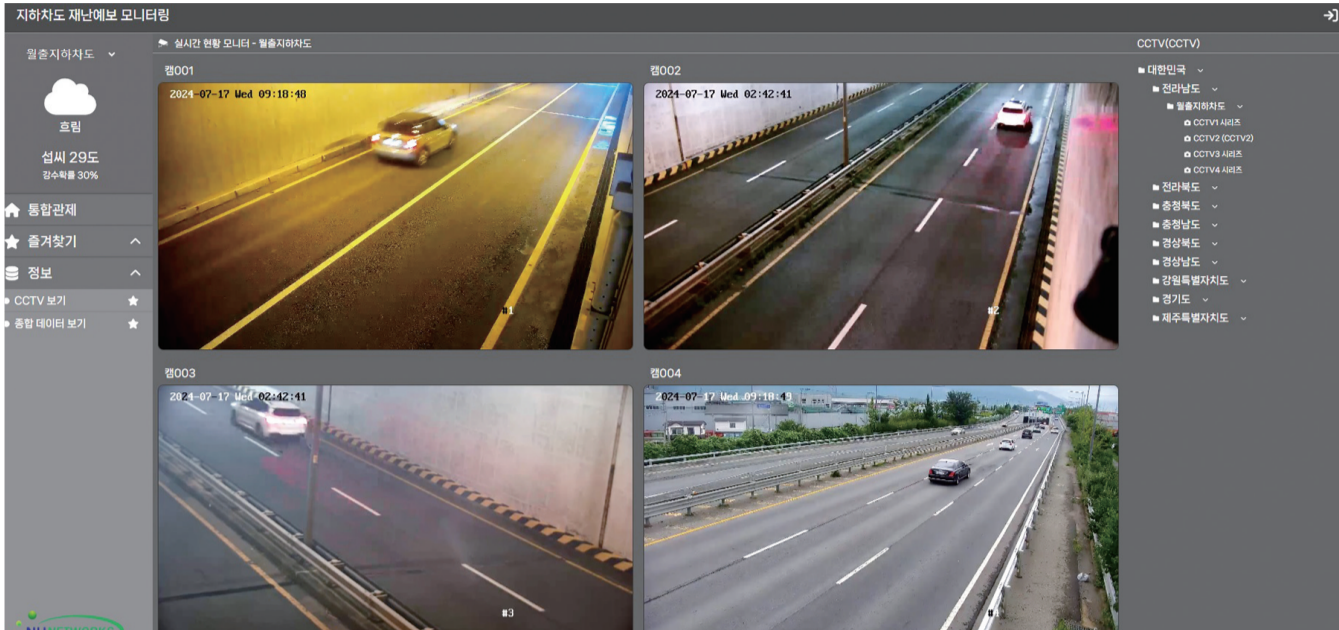
광주 지하차도 '인공지능 침수 예측 시스템' 주목

AI사업단, 도시문제 해결형 솔루션 집중호우 대비 월출 등 4곳에 구축 수위측정 오차 5mm 이하 유지 가능 "데이터 모니터링 통해 재난 예방"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광주지역 지하차도에 구축된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예측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2023년 도시문제 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엔에치네트웍스 주식회사와 AI스타트업 윈디가 협력해 개발한 'AI 기반 침수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CCTV(폐쇄회로 TV)와 비접촉 수위 센서를 결합한 복합 로컬센서로,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용전동 월출 지하차도 및 주변 지역 4곳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수위 및 침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AI 기반 침수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캡처 모습.

AI사업단 제공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AI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이나 차량 등의 객체를 식별해 정확한 수위 데이터를 확보하고 오인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수위 측정 오차 범위를 5mm 이하로 유지해 침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장마철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출 지하차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각화돼 웹사이트(<https://nhnetworks.nwc-hosting.com>)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기상청의 강우량 및 강수 확률 등의 기상 정보를 연계해 침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다.

침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 전 150m와 300m 지점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침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데이터는 앞으로 광주 첨단 3지구 AI집적단지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광주형 지하차도 침수 예측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광주 AI사업단장 직무대행은 "AI 기반 침수 예측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면서 "집중호우 등 도심 속 다양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AI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전남도 "국립의대 추천대학 공모 인정 잇따라"

복지부·교육부 장관 등 국회서 답변

전남도에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공모 당위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열린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문답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의원이 "(전남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도의 요청을 정부에서는 수용할 예정이지"를 묻자 조 장관은 "용역결과 후에 전남도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대통령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만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남지사가 책임 있게 처리를 하고, 또 정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선배정해줄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배정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미화 의원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통해 배정과 학교, 규모를 요청하면 (정부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라고 확인차 질문을 던지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명확히 답했다.

또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동의 하느냐"는 물음에는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맡은 A.T커니와 법무법인 지평은 전남도 국립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의대와 대학 병원 설립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남도한바퀴' 광주·전남 공동상품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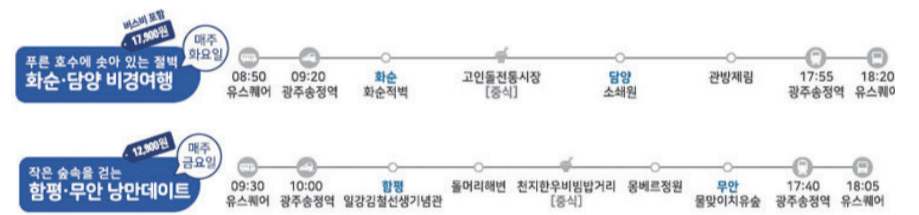
여름코스 광주·포충사 등 경유 광주시티투어 연계 전남 코스도

전남도의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광주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전남·광주 공동상품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월 전남-광주의 비교우위 관광 자원, 인프라 등을 연계한 공동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전남관광재단과 광주관광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품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여름코스를 바탕으로, 광주지역 주요 관광 자원을 경유하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각 2회 운영한다.

화요일에는 색색의 꽃단지가 있는 '광주호호수생태원'을 포함한 '화순·담양 비경여행' 코스, 금요일엔 광주시 제7호 기념물이자 역사와 문화를 품은 포충사를 경유하는 '함평·무안 낭만데이트' 코스가 있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하며 송정역을 경유, 탑승 및 하차도 가능하다.

전남 관광지의 역사나 문화를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관광지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도 이뤄진다. 예약은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이나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에서 운영하는 광주시티투어도 전남 관광지를 연계 운영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운행코스를 통해 화순적벽, 소재원, 함평자연생태공원, 영광백제불교 최

초 도래지 등 남도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도록 해 여름철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광주의 관광지를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 항저우 정기노선과 연계한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시범 운영하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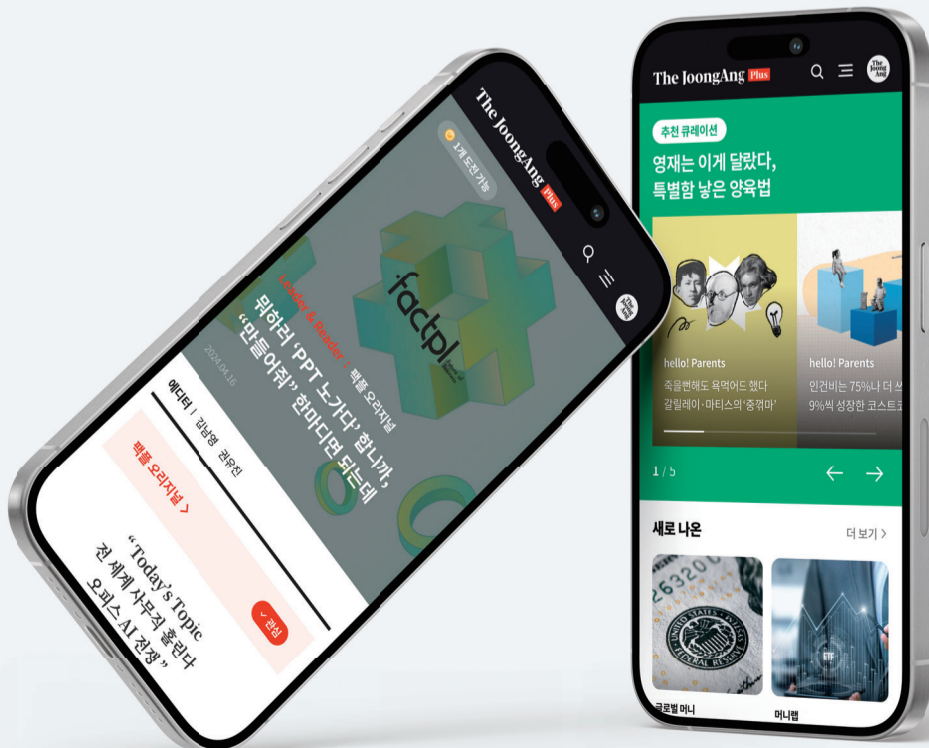
한편 지난 6월까지 총 458회 운영된 '남도한바퀴'를 통해 총 1만3000여 명이 전남 관광지를 누볐다.

오지현 기자

인사이트를 더하다

사실에 통찰을, 정보에 취향을 더했습니다.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를 더하세요. 중앙일보는 뉴스 위에 독자를 더하겠습니다.

The JoongAng Plus



더중앙플러스 바로가기